

## 21 세기를 위한 사회신조

우리 미국의 교회들은 21 세기의 이 어려운 시기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908 년, 20 세기 초의 혹독한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지자적인 견지로 “사회신조”를 발표했던 것과 같이, 세계화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보다 적은 것을 소모하며, 의심을 넘어 긍휼히 여김과 지배권력을 넘어 평등을 추구하며, 무장된 무력보다는 결속력을 통한 안전성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평화로운 왕국” 환상에 영감을 받아, 교회는 모든 사람의 위엄과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이사야 65:23) 그 날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다. 우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요한복음 10:10) 하기 위해 오신 분의 제자들로서 이를 행하며, 그리스도인들과 지구 곳곳에서 정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과 결속한다.

우리의 창조주께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각각의 남성, 여성, 어린이 즉,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개인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피조물의 전인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모든 인종의 여성, 그리고 남성의 전적인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권리
- 강제노동, 인신매매, 그리고 아동착취의 폐지
- 최저생계비가 보장된 균등한 직업에 따른 공평한 보수
- 노동자의 조직 결성권과 사내 결정권 및 생산성 증가의 공유
- 온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적 물적 혜택과 위험한 노동조건으로부터의 보호
- 정의의 회복과 사형법 폐지에 기초한 범죄자 갱생제도

세상의 고통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육하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가족 안에 있는 깊은 관계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영을 일깨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기아와 빈곤의 중지, 그리고 약자의 혜택을 위한 법 제정
- 모두를 위한 고급 공교육,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 병, 장애, 노후 중에도 유효한 사회보장제도
-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불균형을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며, 모두의 공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금 예산 규정
- 가족의 하나됨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고용주의 책임을 요구하며,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이민법
- 구매 가능한 주택, 만족할만한 직업들, 그리고 공중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역사회
- 사적인 이익을 위한 정치적 권력이 제한된 고위 직업으로써의 공공사업

성령에 의해 지속되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화해자가 될 것과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의 청지기가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고소득층의 검소한 생활양식 채택, 욕심을 넘어선 미덕의 소비생활

미국교회협의회 총회(2007.7.07) 와 미국장로교 총회(2008.6.27) 승인

- 지구 및 기술에 대한 현명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공기, 물,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혹은 음식물 제공
- 지구온난화 감소와 그 피해인구 보호를 위한 대체 에너지자원을 촉진하고 의무적 계약에 의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지구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 지역 경제와 문화, 살림을 보호하는 공정한 세계무역과 협력
- 일방적 강압을 넘어선 다각적인 절충, 고문폐지, 그리고 UN 과 국제법 강화를 통한 중재
- 핵군축과 군사자원의 평화적, 생산적 사용을 위한 새로운 방침
- 평화와 환경보존을 위한 세계 종교간의 협력과 대화

우리 각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외적 행동을 겸한 내적 성숙에 뿌리내린 것으로서 비폭력을 채택하며, 인격을 고양하고, 환경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평화적 문화와 자유를 위해 결단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결단한다.